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소식지 2019.03 | Vol.05

紐帶

유대

band

College of Confucian Studies
and Eastern Philosophy



CONTENTS

유학대학 소식 02

-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부총장 본교 예방
- 하버드대 마이클 푸엣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
- 제8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 양현재 동계 입간수업
- 글로벌 유학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5개년 성과보고회

동양철학과 BK21PLUS 04

- 중국산동대와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 국내학술대회 개최
- 중국칭화대와의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학연구소와 공동 학문후속 세대 청년학자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
-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유학사업단 06

- 2018 글로벌캠프, 일본 도쿄에 가다

글로벌 유학대학 07

- 칭화대 파견(이준표 학생 인터뷰)
- 필리핀 어학연수(김예은 학생 인터뷰)

특별인터뷰 09

- 유학대학원 동문회장(박동규)
- 동양철학과 동문회장(장학재)

동문소식 11

- 유학대학 동문회 소개

선배들의 진로이야기 13

- 학석연계(서재현)

알립니다 14

발행일 2019년 3월 4일
발행처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소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발행인 신정근
편집 채희철/김성은

유학대학 소식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부총장 본교 예방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하 NTU) Alan Kam Leung Chan 부총장이 10월 30일(화)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정규상 총장을 비롯한 우리 교수진들과(교무처장, 국제처장, 신정근 유학대학장, 박소정 교수, 김도일 교수) 한국학, 동양철학 분야의 양교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TU와 본교는 그간 공학 분야와 학생교류 영역에서 활발히 교류해왔으나 이를 인문학분야로 확대하고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인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를 통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하버드대 마이클 푸엣 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사람은 고정된 자아(self)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습관과 외부 자극이 쌓아올린 존재입니다. 결국 이 습관과 패턴을 작은 변화로 깨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의 동양 사상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마이클 푸엣 하버드대 교수가 11월 23일 성균관대 유학대, 동양철학과 BK21PLUS사업단, 유교문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강연회에서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중국철학의 시사점을 설파했다. 푸엣 교수는 하버드대 중국사 및 인류학 윌터 클라인 석좌교수로 마이클 샌델 교수를 넘어서는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하버드대 최고의 교수로 뽑혔고 4대 명강의(Havard Thinks Big 4)의 마지막 순서를 맡기도 했다.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



유교철학·문화콘텐츠연구소/한국유교편찬센터(소장 김성기)와 한국유교학회(회장 이철승, 조선대 교수)는 ‘세계 문명의 전환과 유학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3회 세계유교학술대회를 11월 23일, 24일 6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7개국 80여 명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 및 포스트 휴먼 시대로의 진입을 비롯한 세계문명의 전환의 시기, 유학의 현대적·미래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유학의 역할을 공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양현재 동계 입간수업



2018년 12월 22일 ~ 24일 총 3일에 걸쳐 유학대학 양현재 동계 입간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양현재 재생 및 청강생분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 저희 양현재 역시 한 학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였다. 양현재는 매 학기 유학대학 소속 학부생과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로 구성된 외국어 강좌와 사서를 비롯한 여러 고전 강좌를 진행한다.

제8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조선후기 유득공은 <경도잡지(京都雜志)>에서 순성놀이를 ‘도성을 한 바퀴 돌아서 안팎의 멋진 경치를 구경하는 놀이’라 풀이하였다. 유학대학 순성놀이는 한양도성의 성곽(총 18.6km)을 네 구간으로 나누어 연 2회(봄/가을) 성곽을 따라 걷는 행사이다. 2018년 11월 3일(토), 유학대학은 인왕산 정상을 경유하여 창의문을 종착지로 하여 한양도성을 2차 완주하였다. 3차 완주의 시작인 제9회 순성놀이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글로벌 유학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5개년 성과보고회



글로벌 유학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하 유학사업단)은 2019년 2월 28일 사업종료에 대비하여, 지난 5년(2014~2018) 간 사업단에 참여했던 사업단장 및 교수, 강사, 멘토, 유학·동양학과 학생 등을 초청하여 5개년 성과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성과보고회는 5년간의 활동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소감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유학사업단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유학·동양학과 학생들의 4대 역량(인성·창의·글로벌·기초)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무사히 완수한 후 2019년 2월 28일부로 사업기간이 종료된다.

사업단명	사업단장
유학 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통합 랩(LAB)	신정근 교수

중국산둥대학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와 함께 2018년 10월 25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에서 산둥대학 문예미학연구중심과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플러스사업단이 “생태미학과 동양철학(生态美学与东亚哲学)”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2007년부터 매년 성균관대학교와 산둥대학교에서 번갈아 개최하고 있는 본 학술대회는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하는 연례학술대회로서, 올해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본 학술대회에선 성균관대에서 6명, 산둥대에서 6명, 총 12명의 박사가 발표를 하였으며, 학술회의 마지막 순서로서 학생 우수논문 선정(2인) 및 시상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 소속의 고희림 박사와, 산둥대 문예미학연구중심 소속의 周思钊(주사조) 박사가 각각 「朝鲜时代山水画里的“静坐”研究」과 「论生态美学关键词“绿色”」이라는 논문으로, 각 학교 1명에게만 주어지는 우수논문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학술대회 개최

동양철학과 BK21PLUS사업단은 한국철학인문문화연구소, 유교문화연구소와 함께 12월 21일(금), <문명전환과 유학의 창의적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중국칭화대학의 국제학술교류회 개최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교문화연구소, 중국칭화대 철학과와 함께 2019년 01월 15일 중국 칭화대에서 2019年韩国成均馆大学与中国清华大学学生国际学术交流会를 공동 개최하였다. 2016년 1월 4일 학술교류 협력에 관한 협정서 체결이후 연례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성균관대에서 6명, 칭화대에서 4명, 이탈리아와 홍콩에서 각각 1명씩 총 12명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학연구소와 공동 학문후속세대 청년학자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학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의 교육목표에 따라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동경대학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여 2016년 1월 학술교류를 시작으로 매년 대학원생 연구과제 발표를 중심으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술적 교류를 유지하고 한 일 두 나라의 유학교육 연구를 선도하며, 나아가 유교 국제화 거점화과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추가일정으로 저자와의 만남, 동경대 도서관 자료열람을 진행하였다.

• 시간 : 2019년 02월 21일 • 장소 : 동경대학 아카몬 종합연구동

해외 저명학자 초청강연

李承贵(中國 南京大学)

선진유가철학, 송명리학, 노장철학, 철학방법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주요 저서로 《杨简》(2011), 《陆九渊》(2009), 《宗教与哲学》(2009), 《中西文化之会通》(1997) 등 10여 권이 있다. 아울러 1990년대 이래 10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활발한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견학자인 중국 남경대학 이승귀 교수님을 모시고 양명심학의 정신(阳明心学的精神)란 주제로 10월20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Chan Kam Leung Al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

세계적 명문대학인 싱가포르 난양공대(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NTU)의 부총장을 맡고 계시고, 중국철학과 종교, 비교철학 분야의 권위자이며, 유교철학을 설명하는 온라인 공개강좌(MOOC)를 개발하여 많은 호평을 받은 Chan Kam Leung Alan교수님을 모시고, “Explorations in Confucian Philosophy: The Development of a MOOC”란 주제로 10월 30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林月惠, LIN, Yueh-hui (臺灣 中央研究院)

임월혜 교수님은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중국문철연구소(中國文哲研究所)에 재직하고 계시고, 송명리학(宋明理學)과 중한유학비교연구(中韓儒學比較研究)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특히 한국유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 하곡 정제두 등 유학자들에 대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신 바 있는 임월혜(林月惠)교수님을 모시고 “黎貴惇與丁若鏞對西學的吸納”이란 주제로 11월 1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景海峰, Jing Haifeng / 曾振宇, Zeng Zhenyu(中國 深川大學/中國 山東大學)

심천대학 교수와 인문학원(深川大學 人文學院) 원장 그리고 국학연구원

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경해봉 교수님은 주로 중국철학사와 유학연구에 주력하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웅심력熊十力》, 《양수명평전梁漱溟評傳》, 《중국철학의 현대적 해석[中国哲学的现代诠释]》, 《신유학과 20세기 중국사상[新儒學与二十世纪中国思想]》, 《당대신유가当代新儒家》, 《유가 사상과 현대화[儒家思想与现代化]》 등이 있다. 그리고 산둥대학 유교고등연구원(山東大學 儒學高等研究院) 교수와 증자연구원(曾子研究院) 원장 및 중국증자연구회(中國曾子研究會) 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증진우 교수님은 주로 선진제가와 유학사, 유학 자유주의 연구에 주력하고 계시며 주요 저서로는 《전기법기연구前期法家研究》, 《천인현중天人衡中》, 《중국기론철학연구中國氣論哲學研究》, 《20세기유가윤리사상연구二十世紀儒家倫理思想研究》, 《춘추번로주설春秋繁露注說》, 《춘추번로신주春秋繁露新注》 등이 있다. 경해봉교수님과 증진우 교수님은 각각 “说理”와 “儒家仁爱与陌生人社会”란 주제로 11월 22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Michael Puett (Harvard University)

하버드대 월터 클라인 중국사 및 인류학 교수로서 동아시아 언어와 문명 계열(Walter C. Klein Professor of Chinese History and Anthropology,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ivilizations)에 재임 중이고, 중국철학과 예학(禮學) 분야의 권위자이시며 동양철학에 대한 깊이 있으면서도 혁신적인 해석을 통해 많은 훌륭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계신 Michael Puett 교수님을 모시고 “The Path: 중국철학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와 “Ritual, Authenticity, and Human Flourishing (의례, 진정성 및 인간의 번영)”이란 주제로 11월 23일 초청강연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합뉴스, 서울경제 등 여러 매체에서 이번 강연과 관련한 많은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다.



유학사업단

글로벌 유학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이하 유학사업단)은 2014년부터 5개년 간 유학·동양학과 학생들의 4대 역량(인성·창의·글로벌·기초)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유대 소식지에서는 동아시아의 철학, 역사, 문화, 사상을 탐방하는 해외학술답사인 '글로벌 캠프'를 담아보고자 합니다.

사업단명	사업단장
글로벌 유학 창의인재 양성사업단	최일범 교수

2018 글로벌캠프, 일본 도쿄에 가다

글로벌 캠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북경과 서안, 대만 타이페이 등을 답사했고 2018년은 일본 도쿄로 지역을 방문하였다. 지역 선정 후, 학생들과 사업단은 함께 상의하며 일정을 구성하고 2018년 12월 6일부터 9일까지 캠프를 진행하였다. 본지에서는 학생들이 방문했던 답사지 중 사적 유시마 성당과 일본여자대학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일본의 공자 사당, 사적 유시마 성당



사적 유시마 성당(이하 유시마 성당)은 에도 막부 5대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德川綱吉)가 공자 묘를 지은 후 1690년 우에노 시노부가오카의 하야시라잔(林羅山, 1583-1657)이 운영하던 사숙을 이전한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쿠가와 막부가 주자학을 국가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적 유시마 성당 답사를 통해 일본의 유교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유학·동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답게 유시마 성당 경내에 들어서면서부터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적을 주의 깊게 탐방하고 있었다. 유시마 성당은 일본에서 학문의 신을 모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유시마 성당의 대성전으로 들어서는 '행단(杏壇)'이라는 삼문 옆 '학문성취'라는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대학 및 시험 합격을 기원하는 에마(繪馬)가 걸려 있었다. 대성전을 나와 관리소로 가는 길목에 공자상이 있는데, 타이완의 타이페이 라이온스 클럽이 기증한 것으로 세계 최대의 크기라고 한다. 공자상을 지나 관리소로 들어가자 게시판에 경전 수업의 일정표가 보이고, 강의실에서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들리는 경전 강독 소리를 관심을 가지며, 일본에서도 『論語』, 『孟子』, 『周易』 등 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을 배운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유시마 성당을 나오며, 학생들은 전공으로 배우는 내용이 해외에서도 공부의 한 부분으로 다뤄진다는 데에서 자부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향후 학과 전공에서 배우는 내용을 좀 더 주의 깊게 공부할 필요성을 자각했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일본여자대학 교류회

일본여자대학은 1901년 일본 메이지 시대의 3대 교육자 중 한 사람인 나루세 진조(成瀬仁藏, 1858-1919)가 세운 일본 최초의 여자대학이다. 일본여자대학은 도쿄 도심의 메지로 캠퍼스와 가나가와현의 니시이쿠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니시이쿠타 캠퍼스에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출신의 박배영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이번 도쿄 글로벌캠프는 박배영 교수의 도움으로 일본여자대학 문화학과 학생들과의 교류회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교류회는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일본 출국 전 준비했던 한국의 대학문화 등의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 학생들의 발표가 끝난 후 일본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조별로 앉아 양국의 문화 등의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간담회 시간을 마련하였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어색함도 없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고,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양국의 학생들은 본 교류회를 통해 서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됨과 동시에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언급하였다.



글을 마치며

이번 글로벌캠프는 지난 4년 간 유학사업단이 진행했던 중화권 글로벌 캠프와 달리 일본 도쿄를 답사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서, 답사의 방향과 일정 구성에 일부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학생들과 사업단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일본 현지 박배영 교수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글로벌 캠프 종료 이후 사적 유시마 성당과 일본여자대학 방문을 가장 인상 깊었던 곳으로 언급하였고, 이외에 일본의 불교유적(가마쿠라 대불), 신사, 일왕 거주지인 황거 등을 보며 일본의 문화와 역사, 한국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자각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하였다.



글로벌 유학대학

매년 겨울, 유학대학은 중국 칭화대 단기파견연수, 필리핀 해외영어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칭화대 단기파견은 HSK 4급 이상의 유학대학 재학생(학사, 석사, 박사)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해외영어연수는 우수학부생으로 선발된 학부생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일반대학원생이 참여 가능합니다. 글로벌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유학대학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부담보다는 기회>

2018 칭화대 연수 프로그램은 중국 철학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칭화대에서 중국어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기 전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중국어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시고 수업의 난이도를 정해 주시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어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셔서 실력에 상관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시고 부정확한 발음들도 하나하나 교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용 정리>

철학 수업의 특징은 주제별로 가르치기에 적합한 전공자들이 교실에 들어온다는 것과 풍우란의 『중국철학사』를 수업의 큰 골자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중국철학이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한 번 갈무리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철학개론 수업이지만 전공자들이 강의하기 때문에 내용이 풍부하고 ppt를 적극 활용해서 외국 학생들을 배려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ppt는 듣기 실력에 부담이 많은 제 수업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진행의 교재가 되는 『중국철학사』도 본교에서 학부 수업을 통해 한 번 접해본 적이 있어서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올해 『중국철학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수업을 한번 들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권유>

칭화대에서 한 달 간 생활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계속 전공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에게 성대 유학대학이 학생들의 자기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포함해서 일주일 내내 6시간 씩 중국어를 듣는 덕분에 중국어 듣기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하면서 직접 중국어를 말해야만 하는 환경에 있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앞에서 미리 말했던 다른 좋은 점들과 더불어 모두 국내에서 얻기 힘든 이점들을 누릴 수 있어서 매우 고마운 시간이라고 다른 학생분들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2018 유학대학 칭화대 단기파견 프로그램

유학과 이준표



Congratulations



2018 유학대학 필리핀 해외영어연수 프로그램

유학동양학과 17학년 김예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필요성을 항상 느껴왔고, 2학년을 마친 직후 제 자신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유학대학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경험을 찾고 있던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온 후에도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분야가 외국어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단 한 마디를 말하려도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곳의 선생님들이 항상 격려해 주시며 새로운 공부 방법을 꼼꼼히 조언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항상 밝은 얼굴로 즐겁게 수업에 임할 수 있었고, 자신 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영어 공부를 거듭한 끝에, 이전 보다 더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학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

험을 쌓아 온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새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주한 일에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해 버렸던 과거를 반성하며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다정한 필리핀 사람들, 그들 덕분에 저 역시 더욱 친절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언제나 여유가 있고 활기 넘치는 이 곳은 저에게 또다른 에너지를 심어준 것 같습니다. 저의 2학년의 끝, 3학년의 시작을 활기찬 에너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도전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유학대학원 동문회장 박동규

Q 동문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제주 출신 서예가 박동규(朴東圭)입니다. 호는 창봉(滄峰)이며, 당호는 이문서루(以文書樓)와 존화당(尊華堂)을 쓰고 있습니다. 일찍이 소암 현중회(素菴 玄中和) 선생님께 입실하여 서법과 예를 사사하였으며, 1985년 상경하여 여초 김응현(如初 金鷹顯) 선생님께 서와 서법이론을 사사하였고, 구당 여원구(丘堂 呂元九) 선생님께 전각을, 매정 민경찬(梅亭 閔庚燦) 선생님께 그림을, 서암 김희진(瑞巖 金熙鎭) 선생님께는 한학을 사사하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서예에 관심이 많았고, 소암 선생님 문하에 들어가면서 제대로 서예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 국전 초대작가가 되면서 본격적인 서법인으로서의 한 발을 내 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 여러 초대전과 회화대회에서 초대작가이자 심사위원을 역임하기도 하고, 동덕여대, 홍익대, 예술의 전당 등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1990년 공부에 뜻을 두고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진학해 “울곡의 교육사상 -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를 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2002년 중국남경예술학원에서 “완당 김정희의 서법예술연구”라는 논문으로 서법사(문학박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한국서예가협회 회장과 (사)국제서예가협회 부회장, (사)한국전각협회 부회장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유학대학원 동문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성균관대학교는 유학대학이 지향하는 이념을 내적으로 공고히 하고, 아울러 그 외연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1988년 3월에 특수대학원으로서 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난 12월, 총동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총동문회는 650명의 수료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현대인의 정신적 지도 이념으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학을 통해 모교와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한 애경사 지원사업, 장학사업, 성균관, 향교, 서원 등의 유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회원 명부 관리 및 회보 발간 사업 등

이 있으며, 고문(5명), 자문위원(11명), 회장 및 집행부(19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밴드를 통해서 224명이 소통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회원 상호간의 연락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2019년, 유학대학원 동문회의 운영계획 및 중점사항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올해 총동문회는 3월 중에 임원 워크숍을 시작으로 학술 동아리 활동(성독반, 고문서번역반 등)과 향교 및 서원 탐방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상조회를 운영하여 동문 직계가족이 상을 당하면 근조기를 보내줌으로서 동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후배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의 중점 행사로 교수님과 재학생, 졸업생이 하나가 되는 “풍류한마당”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금잔디 광장에서 백여 명의 갓 쓰고 도포 입은 선비들이 모여 창을 하고 가락에 맞춰 명연 명구를 휘호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학이 무엇인지, 선비는 어떤 사람들인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합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독을 하다가 흥이 나면 나와서 한바탕 흐드러지게 선비 춤을 추며 풍류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총동문회는 성균관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동문들이 스스로 전문성을 살려 전국 23개 향교와 500여개의 서원에서 인의예지(仁義禮智)의 품성을 갖춘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점차 유학사상을 궁구하여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널리 확대 보급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Q 회장님께서 한국서예가협회장이시며, 한국 서예를 빛낸 거장으로 유명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함께 서예를 연구하시는 유학대학원 일원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A 네 제가 총동문회 초대회장직을 수락하고 추진위원 동문들과 여러 차례 모임을 가지고 교감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공자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대신 할까 합니다. “군자준도이행(君子遵道而行)하다가 반도이폐(半途而廢)하니 오불능이의(吾不能已矣)로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도를 따라 행하다가 중도에 폐지하나니 나는 그만 두지 못하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서예를 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저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면 속도가 빠르건 늦건 꾸준히 발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유학대학원 동문회가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말씀이 더 와 닿습니다. 꾸준히 서예를 쓰듯, 서예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뜻을 두고 나아가는 길로 정진하듯, 우리 총동문회도 멈추지 않고 함께 오래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용을 따라 준도이행(遵道而行)하는 마음가짐으로 활동하다보면 동문들 상호 간에 유대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우리 유학대학원과 동문회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 인터뷰



동양철학과
동문회장 장 학 재



Q 동문회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기해년 새해에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동양철학과를 87년에 입학하고 졸업한 장학재입니다.

Q 동양철학과 동문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87학번 동기모임 회장을 맡아서 하던 중,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좋지만 소식을 통하고 있는 선, 후배님과 같이 만나자는 취지로 5년전 동양철학과 OB모임 밴드를 만들어서 졸업생들의 친목과 경조사를 챙기는 친목 도모 단체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인 '17년 87학번 성균관대 홈커밍데이 때 동양철학과 87동기들이 약 580만원 정도를 모금하여 그 중 500만원을 학과 장학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행사를 기점으로 홈커밍데이와는 별개로 인원, 장학금 액수와 무관하게 회원간 친목도모 및 장학금을 주는 항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18.12.01일 '유학동양학과와 함께하는 동양철학과 총동문회' 발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Q 2019년, 동양철학과 동문회의 운영계획 및 중점사항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A 네, 우선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가 최우선 사업이기에 분기에 1회 정도의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번 모임은 '19.02.28(목)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학번별 조장을 임명하고 학번 단위 모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원 경조사에 대한 지원 및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 회원들이 내는 회비납부 및 수익을 내는 사업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Q 금번 동양철학과 동문회 창립총회에서 유학대학 학부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주셨는데, 동문회 장학생들과 함께 다른 학부생들에게도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A 제가 이런 말을 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도만 했을 뿐 저희 졸업생들 모두가 한 일이라서요, 학부생들에게 조언이라고 한다면 학교에 있을 때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꼭 전공서적이 아니라도 본인이 읽었던 책들이 언젠가는 꼭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인 생활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도서관 바닥에서 읽었던 유시민의 '향소이유서'도 직장 내에서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면 맞춤법, 띄어쓰기도 도움이 되어 기안서나 품의서 작성에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학생 신분일 때 사회문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때는 최루탄으로 캠퍼스가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걸어난 자랑스러운 사회 비판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학회지 제목이 "모난돌"이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다는 말이 있지만 둥근 돌보다는 모난 돌이正義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동문소식

“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창립대회 ”



지난 2018년 12월 22일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과 6층 첨단강의실에서 졸업 및 수료 동문 650명의 마음을 모아 유학대학원 총동문회 창립식이 있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유학대학원이 어느덧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동문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동안 동문회 창립을 위한 몇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비로소 창립하게 된 것은 그만큼 산고의 고통을 오래한 결실이 맺어진 값진 결과가 하겠다.

이번 동문회 조직은 유학대학원 신정근 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2013학번 이흥근 동문이 첫 추진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흥근 동문은 지난 2017년 상반기에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각 기수별 회장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계속하지 못하다가 2018년 4월에 96학번 박평선 동문이 그 뒤를 이어 추진위원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창립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유학대학원 설립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와 함께 발기인대회를 하면서 8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하면서 동문회의 창립에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먼저 동문회장을 추대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마치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君子好逑)"의 마음으로 찾은 결과 90학번 박동규 동문께서 흔쾌히 나서주셨다. 서예인으로서 큰 전시를 앞두고 있던 박동규 동문께서는 큰 부담을 안고 몇 번의 거절을 했으나

추진위원들의 간곡한 권유 끝에 수락을 해주신 것이다. 참 아름다운 선택이 아니었나 싶다.

추대할 동문회장의 내정에 따라 창립대회 준비는 커다란 원동력을 얻어서 마침내 650명의 동문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창립행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글 / 사무총장 박평선>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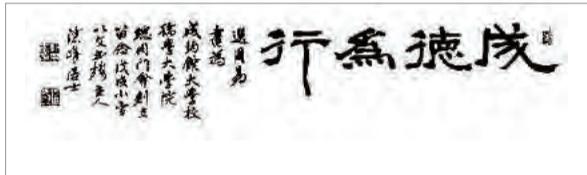
창립대회 기념품 휘호 - 박동규(1990) -

遵道而行 | 도를 따라 행하다. <中庸 第十一章>



[原文] “君子遵道而行하다가 半途而廢하니 吾不能已矣로라.”
군자가 도를 따라 행하다가 半途(中途)에 폐지하고는 하나니, 나는 그만두지 못하노라.”

成德爲行 | 덕을 이루는 것으로 행동을 삼는다. <周易 乾卦>



[原文] 君子 以成德爲行 日可見之行也.
군자는 덕을 이루는 것으로 행동을 삼아서 날마다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

기념품



祝成均館大 儒學大學院 同門會 創立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동문회 창립을 축하하며

蔡舜鴻(1999) 拙吟

成均館大學儒風 성균관대학교에서 유풍을 배우고
卒業同門會一同 졸업후에 동문들이 함께 모였다네.

和氣相傳欣客席 화기가 전해지니 객석은 기뻐하고
情談不絕樂賓宮 정담이 안 끊이니 손님은 즐겁구나.

文詞本是先賢跡 문사는 본시 선현의 자취인 것이고
道義無非大聖功 도의는 큰 성인의 공 아님이 없네.

拍手如雷場內振 우리 같은 박수가 장내를 떨치고
無窮發展祝杯充 무궁발전 원하며 축배를 더하네.

INTERVIEW

서재현(유학·동양학과 13학번)



Q_ 소식지를 보고 있을 동문들에게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_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동양학과에 13학번으로 입학해 19년도에 학석연계과정으로 우리 대학원 유학과로 진학하는 서재현이라고 합니다. 학교에 입학한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Q_ 학석사연계과정생으로 19-1학기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_ 졸업을 앞두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제 생각을 말하는 순간에 설렘을 느꼈던 저는, 강연자라는 꿈을 갖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학부과정을 통해 제가 관심있는 분야인 “노인의 좋은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노인학에 대한 직접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 정리하고 심화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학기에 대학원 과목을 수강하고 진학 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학업계획상에서 학점의 여력이 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Q_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는 유학대학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A_ 저 역시 대학원에 입학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과 교수님들께서는 늘 학부생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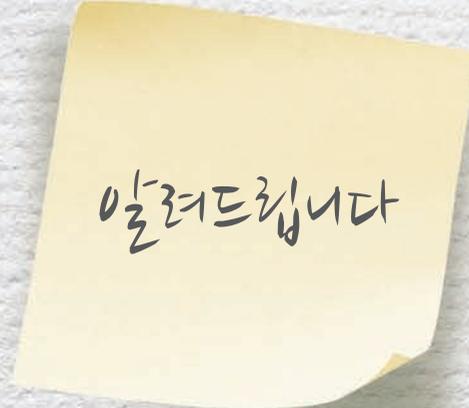
저 역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제가 학부에서 보았던 교수님들을 찾아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께서 제 길에 대해 응원해 주시고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해 주신 기억이 남아 한 분, 한 분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 덕분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학원으로 가는 친근한 선배들과 좋은 교수님들께 좀더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학원 진학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과가 어느 학과보다도 많은 지원과 양현제 장학제도 등의 학비지원, 글로벌 캠프 등의 참여 혜택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대학원 진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_ 유학동양학과의 일원으로서 행복했던 경험들 몇 가지 나누어주세요.

A_ 저는 학부생활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라면 놓치지 않고 지원하여 참가할 수 있

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들을 꼽자면, 1,2학년에 농활을 3번 다녀온 것, 세계 철학자 대회에의 참가, 유학대 학생회와 소모임 참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1,2학년에 동아리와 학부 농활을 모두 참가해 마지막에는 농대장으로 뽑혀 농활에 참가했는데, 군 입대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장 인상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다녀온 세계 철학자 대회에서는 교수님들과 함께 세계규모의 철학대회에 패널로 직접 참가했던 인상깊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학대 학생회에서 1년동안 친구들을 참가시키기 위해 영혼을 갈아 넣으며 활동했던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친구들이 유학대의 전통과 끈끈한 유대감을 잘 지켜주는 것을 볼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복수전공과 취업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우리 학과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경험을 역시 그 이상의 배움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후배분들께서도 이 기회들에 참여하며, 멋진 꿈을 함께 그려 나가길 응원합니다.





01

“2019년 제3회 동아유학 “동아시아 유학 박사생 국제논단”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이 주최하는 “제3회 “동아시아 유학 박사생 국제논단”이 2019년도 8월~10일(예정) 열릴 예정이다. 참가 대학은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서 복단대학, 북경대학, 중산대학, 대만대학, 홍콩중문대학, 동경대학, 경도대학이다. 이상 각 대학에서 2명씩 논문발표를 통해 서로 간 학술교류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유학연구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일시 | 2019년 11월 8일~10일(예정)
장소 | 중국 중산대학교

02

“2019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센터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사업단 출범 이후 산동대학 문예미학연구센터와 함께 “동아시아 철학과 미학의 현대적 가치”에 관한 지속적인 학술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매년 장소를 번갈아 개최하는 공동학술대회를 올 해는 중국 산동대학에서 개최하게 된다.

일시 | 2019년 10월 18일 ~ 21일(예정)
장소 | 중국 산동대학교

04

2019 춘계 유학대학원 해외학술답사

춘계 유학대학원은 중국 허난성으로 답사를 떠납니다. 매년 진행되는 해외 학술답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행정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9년 4월 12일(금)~2019년 4월 15일(월)
장소 | 중국 허난성 내 정주, 낙양, 등봉, 안양, 준현, 개봉 등
참가대상 | 유학대학 학생 및 배우자/지인 등

06

2019-1학기 일반대학원 진학설명회

일시 | 2019년 4월 1일(월)
장소 |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5층 조병두홀

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면제)신청

일시 | 2019년 3월 4일(월)~3월 7일(목)
GLS | 신청/자격관리에서 온라인 신청

05

제8회 유학대학 순성놀이

유학대학에서는 2015년부터 매 학기 서울 성곽을 4코스로 나누어 순성놀이를 실시합니다. 4학기를 함께 참여하시면 서울 성곽을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2019년 5월 중
장소 | 송례문~창의문(5.3km)
문의 | 유학대학 홈페이지(http://scos.skku.edu/scos) 4월 중 공지

03

동경대학 중국사상문화학연구실과 공동 학문후속세대 청년학자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BK21PLUS 사업단은, 유학교육 연구의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동경대학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지난 2016년 1월부터 동경대학과 매년 대학원생 연구과제 발표 등의 학술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외에도, 저자와의 만남, 동경대 도서관 자료열람, 칸다 지역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동경대학과의 지속적인 교육 연구의 교류를 통해, 한·일 간의 유학 교육 및 연구를 선도하고, 나아가 유학 교육의 국제적 거점 학과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있다.

일시 | 2020년 01월 (예정)
장소 | 동경대학

그밖에 2019년 5월부터 Franklin Perkins, 하와이대학교 철학과 교수, 임광화, 인민대학교 국학원 교수, 카렌 암스트롱(KAREN ARMSTRONG), 영국 종교학자, 위니성, 싱가포르 난양공대 철학 프로그램 교수등 여러 해외학자 초청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업단 홈페이지나 유학대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bk21plus.skku.edu/confu/main/main.jsp>

07

대학원과정 학위논문 예비/심사 신청

일시 | 2019년 4월 22일(월)~4월 26일(금)
GLS | 신청/자격관리에서 온라인 신청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https://scos.skku.edu>

https://scos.skku.edu/eng_scos